시민을 섬기고 일하며 책임지는 의회

2025. 5.

- 2025 심천 국제드론박람회(UAS EXPO CHINA 2025) 방문 등 -

중국 심천시(深圳市)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당 진 시 의 회

(의 회 사 무 국)

목 차

Ⅰ. 출 장 개 요 1

Ⅱ. 출 장 일 정 2

Ⅲ. 방문지역 일반 개황 3

Ⅳ. 출장 주요 내용 4

Ⅴ. 시사점 및 향후 계획 10

- 2025 심천 국제드론박람회(UAS EXPO CHINA 2025) 방문 등 -

중국 심천시(深圳市)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 세계 드론산업 발전 동향 및 첨단 기술 확인 등을 위한 ‘2025 중국 심천 국제드론박람회(UAS EXPO CHINA 2025)’ 참석과 한중 드론합작사업 구체화 등을 위한 주요 선도기업 방문을 중심으로 한 중국 심천(深圳)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함

Ⅰ 출 장 개 요

○ **기　　간** : 2025. 5. 22.(목) ~ 25.(일) / 3박 4일

○ **출 장 지** : 중국 심천시(이하 “선전시”라 함)

○ **출장목적**

- 국제엑스포 참가를 통한 드론산업의 선진 사례 습득 및 교류 확대
- 스마트시티,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드론 활용 사례 벤치마킹
- 한중 드론합작사업 추진 관련 업무협의 및 당진시 투자여건 홍보 등

○ **방문단 인원** : 13명(시의회 4, 시청 8, 통역 1)

연번	소속	부서	직위	성명
1	시의회	-	시의원	윤명수
2		-	시의원	전영옥
3		의회사무국	수석전문위원	윤정현
4		의회사무국	주무관	윤희랑

5	시청	-	부시장	황침현
6		투자유치과	과장	조능호
7		관광과	과장	박미혜
8		스마트도시과	스마트도시계획팀장	박정래
9		투자유치과	신산업유치TF팀장	이원회
10		투자유치과	주무관	최승용
11		투자유치과	주무관	정승희
12		투자유치과	주무관	오세영
13	통역	-	-	강성규

II 출 장 일 정

날짜	지역	세부일정
<1일차> 5. 22.(목)	인천 ⇩ 선전	▪ 출국 : 인천(08:40) → 선전(11:35) ※ 대한항공 ▪ 기업방문 : SIYI ▪ USAE 환영 만찬 및 시상식
<2일차> 5. 23.(금)	선전	▪ 드론박람회 개회식 참석 및 전시관 관람 ▪ DJI 플래그십스토어·쿼후상가 방문 ▪ 갈라디너 참석
<3일차> 5. 24.(토)	선전	▪ 기업방문 : Autel ▪ 드론 배송 체험(선전도서관) ▪ 화창베이·금수중화 민속촌 방문
<4일차> 5. 25.(일)	선전 ⇩ 인천	▪ 입국 : 선전(12:40) → 인천(17:00) ※ 대한항공

Ⅲ 방문지역 일반 개황

○ 일반사항

- 국명/수도/도시 : 중화인민공화국 / 베이징 / 선전시(深圳市)
- 중국 광둥성에 위치, 홍콩의 접경지
- 인구/면적 : 1,768.95만 명/1,997.47㎢ ※ 중국의 약 1.25% / 서울의 약 3.3배
- 행정구 9개, 기능구 1개, 특별구 1개

○ 경제현황

- GDP(억 위안)/1인당 GDP(위안) : 36,801.87 / 206,867

■ 광둥성 및 선전시 주요 경제지표 비교(2024년 기준) / 단위 : 억 위안)

구분	광둥성		선전시	
	수치	증감률	수치	증감률
GDP	141,633.81	3.5%	36,801.87	5.8%
소비재 총매출	47,872.80	0.8%	10,637.70	1.1%
수출액	58,915.6	8.4%	28,122.16	14.6%
수입액	32,210.73	12.5%	16,926.08	19.6%

[자료 : 광둥성통계국, 선전시통계국 / KOTRA]

- 최근 5개년 선전시 경제성장률 :
  - '20(3.1%) → 21(7.0%) → '22(3.4%) → '23(6.0%) → '24(5.8%)

○ 특징

- 1980년 8월, 중국 최초로 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된 부성급시

※ 중국 광둥성에 위치하며, 홍콩의 접경지로 경제특구 지정 이후 급격히 성장

※ 선전시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와 함께 중국 4대 도시에 속함

- 중국판 한강의 기적, GDP 43년 만에 약 15,615배 상승

※ 2017년, 광저우를 제치고 광둥성 내 GDP 1위에 오랐으며, GDP 총액은 상하이와 베이징에 이어 중국 3위 기록

※ 2018년, 홍콩의 GDP 규모를 넘어섰으며, 1인당 GDP도 중국 내 최상위권에 위치

- 중국 최대 ICT 산업 클러스터 지역으로 4차 산업혁명 시도

※ 텐센트, 화웨이, BYD, DJI 등 주요 ICT 기업 본사 다수 소재

※ 선전시 IT산업 시장 규모는 2조 4,800만 위안으로 중국 전체 IT산업의 6분의 1 차지

- 중국 금융의 허브이자 7대 전략신흥산업 집중 육성 지역

※ 중국 3대 증권거래소 중 하나인 선전증권거래소가 위치, 상하이·베이징에 이은 중국 최대 금융 허브

※ 2024년 선전시 7대 전략신흥산업(차세대 IT정보, 디지털 및 패션, 첨단장비, 그린저탄소, 신소재, 바이오 의료 및 헬스케어, 해양경제) 생산 증가액이 선전시 GDP의 42.3% 차지

- 중국 도시 중 수출액 29년 연속 1위, 대외 교역액 2위

※ 2024년 수출액은 2조 8,122억 위안으로 중국 도시 중 가장 많은 수출액을 기록

- 중국 최고의 외국기업 인기 투자 지역

※ 2022년 기준, 전세계 500대 기업 중 360개 기업이 선전에 투자

※ 2025년 기준, 선전시에 진출한 한국투자기업은 531개

- 중국 고소득 도시 3위의 소비 허브

※ 2024년, 선전시 1인당 가처분 소득은 베이징·상하이에 이어 중국 3위

※ 샘스클럽, 월마트, 텐홍 등 소비재 유통 글로벌기업의 중국구매본부가 선전에 집중

Ⅳ 출장 주요 내용

○ 심천 국제드론박람회(UAS EXPO CHINA 2025)

- 제9회째를 맞이하는 심천 국제드론박람회(UAS EXPO CHINA)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무인항공기, 자율주행 및 무인시스템 기술 관련 전문 박람회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드론 산업 전문 전시회라고 할 수 있음

- 드론 산업의 최신 기술과 시장 동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요 기업·연구기관·정책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를 교류하는 장이 되고 있음

- 올해 박람회는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되었으며, 500곳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고 3만 5천여명이 참석. 드론/무인 시스템/통신 및 데이터링크 기술 등 관련 제품 4천 여종이 전시











○ 주요 선도기업 방문 : SIYI

- 설립연도 : 2017년
- 직원 수 : 300여 명
- 무인 시스템 및 스마트 로보틱스 분야 선도기업으로 40km까지 조정할 수 있는 FC(Flight Controller)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드론, 짐벌 카메라, AI 기반 추적 모듈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생산하고 있음. 바다에서 쓰레기를 인식할 수 있는 모듈을 출시한 바 있으며, 생산 공장은 약 4천 평 규모로 자동화 라인 및 수동 라인이 운영되고 있음
- SIYI 한국 공식대리점 : ㈜미르항공기술



○ 주요 선도기업 방문 : Autel Robotics

- 설립연도 : 2014년
- 연구인력 : 600여 명
- Autel Robotics는 소방정찰, 안전관리, 순찰 등에 특화된 드론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1억 5천 3백만 달러 이상의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있으며, DJI에 이어 세계 2위 업체로 평가받고 있음
- 미국 시애틀, 독일 뮌헨, 이탈리아 등에 글로벌 연구소와 지사를 두고 있음. 2021년 기준, 미국 드론 시장에서 7%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 국경순찰대에서 주로 사용 중
- Autel Robotics 한국 공식대리점 : 덕유항공(주), ㈜한국무인기안전기술(KRDST), 아임드론로보틱스



○ 주요 선도기업 방문 : DJI 플래그십스토어

- DJI는 2006년 설립된 드론 전문기업으로 전세계 드론시장의 70% 이상(미국 시장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세계 드론 1등 기업임. 직원수는 14,000명 이상이며, 2024년도 기준 영업이익 50억 달러(약 7조원)를 달성한 바 있음
- 드론 뿐만 아니라 액션 카메라, 로봇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생산하고 있으며, 상업용 드론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바탕으로 세계 드론 산업을 선도하고 있음
- DJI 플래그십스토어(4,000㎡)는 선전시 난산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DJI 전 제품 카테고리의 판매·A/S 및 교육·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드론 배송 체험(선전도서관) : 메이투안

- 메이튜안은 중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회사로 음식, 숙박, 여행 등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작함.
- 드론 배송 시간은 평균 15분 이내에 완료되고 있으며, 주문 시 특정 장소에 설치된 플랫폼(픽업 키오스크)에 드론이 이·착륙하여 주문한 상품을 제공함
- 인구밀도가 높은 선전시와 같은 지역의 경우, 드론을 이용한 물품 배송은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이와 같은 드론 음식 배달이 자리를 잡으면서 드론 배송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미 선전시민들에게는 일상적인 서비스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Ⅴ 시사점 및 향후 계획

○ 시사점

- 드론은 최고의 가능성을 가진 유망 산업으로 각광받아 온 바, 중국은 시장 선점을 위하여 전폭적인 지원과 규제 완화를 바탕으로 자국 기업을 육성하였고, 이들 기업은 현재 드론 시장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음
- 선전은 중국의 '드론 실리콘벨리'로 불릴만큼 세계 유수의 드론 기업이 밀집해 있으며, 대기업은 물론 다양한 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빠른 성장과 창조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음
- 이들 기업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이익 창출과 시장지배력 유지를 위해 연구개발 및 투자에 집중하고 있으며, 미국발 관세전쟁 등 수출시장에 확대되는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브랜드 강화, 기술 내재화, 고급화 전략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 관세전쟁의 여파로 중국은 중국 외 국가로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UAS EXOP CHINA'를 활용해 글로벌 시장 확장에 나서고 있음. 실제 박람회 참가 기업은 전년보다 증가하였으며, 박람회를 통해 보여준 정부·협회·민간 기업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은 매우 돋보였음
- 우리나라의 드론 시장은 2019년 4천억 원 수준에서 2023년 1조 1천억 원 수준으로 성장함. 국내 드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 또한 2천여 개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어느 정도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였으나, 여전히 각종 규제와 영세성의 한계로 기술 개발이나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중국 기업의 드론에 내수 시장을 내어준 상황임

- 정부 차원에서 일관되고 꾸준한 지원 정책과 규제 완화로 민간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민·관·학 연대를 통해 조립 중심의 생태계가 아닌 자체 기술 자립과 생산 중심의 생태계 구축이 시급함. 또한 국내 수요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 교두보를 마련하여 시장 지배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함

○ 향후 계획

-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드론 산업 또한 큰 영향을 받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바, 이는 한국 기업에게는 위기인 동시에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음
- 중국 심천 드론산업협회를 비롯하여 그동안 구축해 온 다양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드론 산업 동향 여파를 꾸준히 주시하고, 당진을 드론 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함
- 드론산업지원센터 활성화와 삽교호 드론라이트쇼 등을 통한 관련 산업 저변 확대 노력을 지속하고, 궁극적으로는 당진시에 한중 드론합작 법인설립 또는 국내 드론기업 유치를 실현해 나갈 것임